

교회 목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은 성도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하모니

2011년 추수감사절
찬양축제 준비합니다!

10월

교회
일정

- 5 (일) 주 경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8 (일) 당회고시(오후 2시)
21 (일) 제44대 장로피택기 주례발표(금요찬양집회)
23 (일) 2011년 제5차 막을세례식(산양예배)
26 (일) 임직예배(수요2부예배)
28 (일) 2011년 제3차 정기기운전(금요찬양집회)
30 (일) 종교개혁주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천국에서도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로 분주할까요? 아닙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될 일은 오직 하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찬양과 경배입니다(제 7:10~12). 그만큼 찬양은, 기도와 더불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총현음악아카데미를 통하여 다양한 악기를 배운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연주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입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단면을 보게 하며, 장차 완성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이와 같은 찬양의 장치가 2011년 추수감사절 즈음인, 11월 18일 금요찬양집회 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찬양축제는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와서 찬양과 감사의 하모니를 이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총 6곡을 온 성도가 찬양하고 연주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 최소 24개 이상의 악기가 연주될 수 있도록 편곡을 하고 있습니다. 단방탄 찬양연습을 위해 금요찬양집회 작성 시 현악기는 1교구 작성, 관악기는 대학청년부 작성 앞쪽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찬양집회를 중심으로 연습할 예정이니, 온전한 감사의 찬양제가 되도록 악기준비를 비롯한 찬양에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시 33:3).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이는 내 아들이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여 주며,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요한이 마지못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다(마 3:14~15).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므로 4복음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마 3:16~17). 세례는 예수님 계도 중요하였다(눅 2:49).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의 참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입으로 말씀하여 주셨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누가는 비교적 짜임새 있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직후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한다(눅 3:21~23).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친명하신 후 이어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설명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마을,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자다.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의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선포하신 하나님의 몇 가지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시 2:7 ; 사 42:1 ; 창 22:2).

1. "이는 너는 내 아들이다"(시 27) 시편 2편은 본래 다윗 왕에 관한 시였으나, 후에는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왕들을 위하여 불려졌다. 왕은 대적들의 적대감이나 태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왕을 기를 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왕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

는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대관식을 할 때나 왕위에 올라 통치할 때에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으로 다윗의 왕위는 끝이 났다. 그리하여 이 시편은 장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에 왕위에 오를 다윗의 아들, 즉 기대하는 메시아에게 적용되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들려진 찬양의 음성은 곧 예수를 기다리던 그분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2.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사 42:1) 이사야 40~55장에는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자에 관한 시가 연속적으로 나온다. 여기에서 종은 왕과 같은 모습으로 소개된다. 그러나 점점 진화되어 감에 따라 이 노래들은 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밝히 드러낸다.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의 권력으로가 아니라 좌절과 고난과 배척과 죽음을 통하여 완성시킬 것을 보여준다(사 49:5~6). 이 종은 그 값을 지불하기까지 자진해서 택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베풀어 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3.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창 22:2) 아브라함은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거리낌 없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들로서 희생되기를 꺼려하지 않는 이삭의 순종은 참으로 하나로 묶여 있음을 보여 준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다(롬 8:32).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사랑하는 자로 예수를 불러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세상을 위한 구원자로 희생하실 것도 알고 계셨을 것이다. 기뻐하노라 이삭을 대신했던 그 수양이 예수께는 없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사명을 다 알고 계셨다. 아멘.

DANIEL'S FAITH

⁽¹⁾It pleased Darius to appoint 120 satraps to rule throughout the kingdom,

⁽²⁾with three administrators over them, one of whom was Daniel.

The satraps were made accountable to them so that the king might not suffer loss. ...

⁽²²⁾My God sent his angel, and he shut the mouths of the lions. They have not hurt me, because I was found innocent in his sight. Nor have I ever done any wrong before you, O king."

⁽²³⁾The king was overjoyed and gave orders to lift Daniel out of the den. And when Daniel was lifted from the den, no wound was found on him, because he had trusted in his God. (Daniel 6:1-23)

Daniel, whose name means "God is my judge," was a statesman in the court of heathen monarchs. Taken captive as a youth to Babylon by Nebuchadnezzar in 605 B.C., he spent the rest of his long life there as a governmental official and as a prophet of God. Throughout his life he was uncompromising and faithful to God. His ministry was to testify, in his personal life and in his prophecies, to the power of God. He was given a place of prominence and responsibility in Nebuchadnezzar's kingdom (Dan. 1:19), but after the king's death he apparently fell from favor but was recalled to interpret the writing that appeared at Belshazzar's feast (Dan. 5:13). He was made one of three administrators under Darius (Dan. 6:2). Like Nebuchadnezzar, King Darius also sensed Daniel's excellent spirit and recognized that he was different than anyone else because of his faith, "Now Daniel so distinguished himself among the administrators and the satraps by his exceptional qualities that the king planned to set him over the whole kingdom" (Dan. 6:3). As is always the case concerning the life of believers, the attacks from the enemy thicken as our faith strengthens. Daniel's colleagues plotted against him, but Daniel held strong to his faith.

People of faith are not usually popular, "At this, the administrators and the satraps tried to find grounds for charges against Daniel in his conduct of government affairs, but they were unable to do so. They could find no corruption in him, because he was trustworthy and neither corrupt nor negligent" (Dan. 6:4). Peter reminds us, "Be self-controlled and alert.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Resist him, standing firm in the faith, because you know that your brothers throughout the world are undergoing the same kind of sufferings" (1 Pet. 5:8-9). Wonderful servants, like Paul, Peter, James, and Stephen had undergone severe persecution. They were beaten, imprisoned, and even stoned to death. John 15:18-19 say, "If the world hates you, keep in mind that it hated me first. If you belonged to the world, it would love you as its own. As it is, you do not belong to the world, but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hat is why the world hates you." Recently, I've seen a lot of pastors in the media building fame and appearing very successful, which makes me wonder whether or not they are really believers. After Pentecost, the Christian church took root and Christians have had to suffer ever since for their faith. For centuries and centuries believers have always had a hard time in this world. Will your faith hold up under persecution?

People of faith experience enemy attacks. Daniel's colleagues searched for a flaw in him and couldn't find anything against him. Daniel was a hard, honest, and diligent worker. What a credit to this man of faith! Remember when Pontius Pilate told the Israelite high priests and public congregants that he could find no fault in Jesus? Jesus is the Son of God, sinless in all matters, and yet the world hated

him and put him to death. Daniel's colleagues finally reasoned, "We will never find any basis for charges against this man Daniel unless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law of his God" (Dan. 6:5). So, they cleverly got the king to issue a decree stating that anyone who prayed to any god or man during a thirty day period, except to the king, would be thrown into the lion's den. The enemy knew Daniel was a man of prayer and faith. They knew he would never go against God, which is why they devised their evil plot on that ground. Will your faith hold up against your enemy's attacks?

People of faith always find help in prayer, "Now when Daniel learned that the decree had been published, he went home to his upstairs room where the windows opened toward Jerusalem. Three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d done before" (Dan. 6:10). Daniel's response to the king's decree was to keep praying as before. Nothing changed his practice of faith. He didn't hide or keep secret his devotion to God. The enemy found his fault and told King Darius, who had no choice but to put Daniel in the lion's den, "So the king gave the order, and they brought Daniel and threw him into the lions' den. The king said to Daniel, 'May your God, whom you serve continually, rescue you!'" (Dan. 6:16). The king believed God could deliver Daniel. I've always wondered what Daniel was feeling when he was dropped in the lions' den. I tend to think he was happy, like Paul and Silas who sang and praised God after being beaten and imprisoned. Daniel was placed in hell, but he made it a paradise. Whenever believers face hard times by denying themselves and taking their crosses, those times are not miserable. If they are miserable, then they do not really believe in God. As a believer, anywhere you go is like God's kingdom because Jesus is with you. God protected Daniel from the hungry lions. The king fasted and even had a sleepless night while Daniel was in the lions' den. He was worrying over Daniel's fate. Early the next morning he went to the den and called out to Daniel in an anguished voice, "Daniel, servant of the living God, has your God, whom you serve continually, been able to rescue you from the lions?" (Dan. 6:20). Daniel had been an angelic guest in the lions' den. He answered the king, "My God sent his angel, and he shut the mouths of the lions. They have not hurt me, because I was found innocent in his sight. Nor have I ever done any wrong before you, O king" (Dan. 6:22). Daniel's faith triumph followed the trial. The king soon called for all his people to turn to the Lord. Faith proving true under fire impacts others for Christ. Will your faith hold up to lead others' to the Lord?

My dear friends, do you like Daniel's faith?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will be a child of God. Please don't ever give up. Keep practicing your faith continually. Jesus asks you to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Him. It's the narrow way, but it's also the happiest way. Amen. ■

다니엘의 믿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 (22)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었으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 6:1~23)



김성완 목사

다니엘(하나님은 나의 심판관란 의미)은 이방 군주의 신하였습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젊은 시절 포로로 끌려 온 그는 정부 관리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언제나 타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만 신실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자신의 삶과 예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국에서 중요하고 책임 있는 위치(단 1:19)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죽자 신임을 잃은 듯 보였지만, 뱀사살의 잔치에 나타난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단 5:13). 결국 다니엘은 다리오의 세 총리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단 6:2). 느부갓네살처럼 다니엘의 탁월한 기백을 감지했고, 그가 믿음으로 인해 다른 누구와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단 6:3). 신자들의 삶이 그렇듯,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원수의 공격도 태해합니다. 다니엘의 동료들도 그를 대적하여 모함했지만 그는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켰습니다.

인기가 없다

믿음의 사람은 보통 인기가 없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이었더라”(단 6:4). 베드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간을 당하는 줄을 알이라”(벧전 5:8~9). 바울, 베드로, 야고보, 스테판 같은 위대한 종교도 혹독한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매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5:18~19는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대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최근 방송에서 인기를 쌓아가며 매우 성공한 것 같은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순절 이후, 초대 교회가 뿌리내린 이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항상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세기가 거듭되어도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은 언제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핍박을 견디어 낼까요?

다른 자들은 궤계를 세운다

믿음의 사람은 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다니엘의 동료들은 그의 결점을 찾아 내려했지만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부지런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에게 진실로 합당한 명성이 아닐까!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은 그를 미워해 죽였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동료들도 마침내 그를 죽일 방법을 궁리해 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단 6:5). 그들은 영리하게도 30일간 누구

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금령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절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근거해 사악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적의 공격을 견디어 낼까요?

기도에 분명한 대답이 있음을 알고 있는 믿음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도움을 찾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왕의 금령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이전과 다름없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믿음의 실천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숨거나 몰래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그 사실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느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단 6:16). 왕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무슨 느낌이었을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힌 후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가 행복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다니엘은 자옥과 같은 곳에 있었지만 그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끌어잡으로 환란의 시기를 보낸다면, 그 시간은 결코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괴로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로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다니엘의 왕국과 같은 곳이 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사자 굴에 있는 동안 금식했고 심지어 밤에도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생사가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그는 굴로 가서 격정스런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단 6:20).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천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었으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단 6:22)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련을 겪은 후에 다니엘에게 믿음의 승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왕은 곧 모든 백성이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명했습니다. 이처럼 끝 같은 고난 속에서도 참되다고 판명된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끎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까지 견디어 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좋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제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가장 행복한 길이기도 합니다. 아멘. ■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10:34~42)



지금 많은 교회들은 평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와는 상반없는 평화인 것이 문제다.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평화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평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 전쟁이나 기근이 없고, 삶의 걱정 없이 건강하며 풍요롭게 사는 것은 절대로 평화가 아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태복음(1~28장)만 보아도, 지금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말하는 평화와 성경과는 완전히 정반대임을 알게 된다. 평화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사 9:6).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은 소리 높여 찬양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 그의 사역 때에 믿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셨다

사역 때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셨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요 14:27).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 형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평화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믿는 자들에게 있다.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는 이상과 평화가 아닌,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말미암은 평화인

것이다(로 5:1). 따라서 믿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평안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다(요 14:12).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평화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 10:34)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인간이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불화(마 10:35)와 배척(마 13:54~57; 요 7:5)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속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지금 살고 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평화가 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마 13:24~25). 원수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좋고 흠 없는 모습으로 공격한다. 그만큼 정신 차려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도 평화가 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요 10:7). 비록 절도와 강도 그리고 도둑 같은 원수들이 매번 그리스도의 평화를 잃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지라도 격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요 10:8~10).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해진 자가 누리는 은혜는 놀랍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세상에서의 평화는 경쟁에서의 성공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평화는 죄 문제의 해결에서 비롯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다툼은 진실로 무익하다(눅 22:24, 26; 갈 5:15). 세상이 주는 평화는 민족과 문화에 따라 제각각이다. 절대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있다. 즉, 매 순간 삶에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 누리는 평화이다.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마 13:43, 49~50).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저 주시는 평화가 험한 십자가에 있다. 아멘.

메시아의 죽음①

종의 귀를 칼로 치는 행동

4복음서는 베드로가 종의 귀를 칼로 찼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4복음서 중 처음으로 기록된 마가복음은 “결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마 14:47)고 밝혔다. 마태복음은 “손을 펴”(마 26:51)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약간 더 적극적으로 종의 귀를 칼로 치는 행동을 기술하였다. 또한 누가복음은 칼로 찔러 나간 귀가 오히려 오히려 구제적으로 언급하였다(눅 22:50).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앞선 세 개의 복음서가 기록한 것을 모두 종합하여 종의 귀를 칼로 치는 행동을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코라”(요 18:10).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대략 700~800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들은 검과 몽치로 무장한 로마군인들과 성전 경비군인 그리고 종교지도자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다. 햇빛을 들고 갯세마네까지 찾아온 이들은 보고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이다. 특히 이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다들 콘소라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나선 제자가 베드로였다. 그는 이전에 보여준 기절대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 칼을 들고 나갔다. 그런데 그가 대적한 사람은 로마군인이나 성전 경비군이 아니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나약하게 서 있던 대제사장의 종이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에게로 달려가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아가려던 군인들과

맞서지 않았다. 연약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 칼을 준비하여 빼어 든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칭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종을 향해 달려들었던 베드로는 매우 한심하게 보일 뿐이다. 칼을 잘 다루지 못해서, 또는 당황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할지라도 베드로의 행동은 치사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단치고 싶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한심하고 치사한 모습은 아닌가? 이와 같은 충성심으로는 절대로 주님께로 갈 수 없다. 베드로가 진정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면 가롯 유다나 군인들에게 달려갔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진정 죽을 생각이 없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요 18:8)고 하셨다. 따라서 군인들은 제자들을 잡아갈 생각이 없었으며, 실제로 종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예수님을 위해 베드로가 빼어 든 칼은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의식과 위선이었을 뿐이다. 베드로는 칼을 빼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나아가셔야 했던 예수님을 막는 장애가 되었다. 예수님의 초점은 베드로의 행동도, 종도 아니었다. 오직 십자가였다. 따라서 베드로가 종의 귀를 칼로 치는 행동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복음을 위한단치고 싶고 있지는 않은가? 칼을 빼어 나보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치사하고 비겁한 행동을 멈추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볼드는 것 뿐이다(히 12:2). 아멘.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0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순종과 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생 처음 8박 9일간의 선교를 다녀와서 은혜가 너무 컸다. 입술로만 기도하고 머리로만 묵상해 오던 주님의 말씀을 몸소 체험해 해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어 절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약령들이 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대비해야 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어쩌면 그렇게도 철저히 예비를 해 주셨는지 감탄했다. 예수님 영접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약령의 영혼도 만나게 해 주셨으나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그 약령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이 적은 나의 마음을 더욱 확고히 해 주셨다. 이번 선교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할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셨고, 순종과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임근민(성도, 23교구)

진정한 회개밖에

변두리로 갈수록 폐 마을에 순진한 사람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복음을 받아 들였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생각과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도 달라서 동등한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의 모든 관념과 가치 기준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생활과 생각과 계획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그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삶의 모든 방법을 전환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어야만 진정한 회개가 될 것이고 그래야만 진정한 선교를 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번 선교는 선교보다 진정한 회개를 터득한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성범(안수집사, 12교구)

선교라는 귀한 사명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라는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디스크로 고생하던 나에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심도 감사한데 선교까지 보내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주님의 심정이 이들을 향하여 심히 애절한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배고픔, 가난, 외로움, 그리고 그 천사 같은 웃음 속에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벌써 먼저 오셔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문을 열어 주고 계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을 영접하며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나는 그저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천천교회의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기도후원으로 선교를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향한 종단 없는 선교 사역의 사명을 가진 천천교회가 말씀으로 훈련받아 사람으로 넘치는 선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노연준(집사, 3교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요!

동 말 레 이 시 아 (EAST MALAYSIA)



위 치 : 보르네오 섬 북서부
공용어 : 레이어, 영어
종 교 : 기독교 43%,
이슬람 30%,
불교 15%,
기타 원시종교
인 구 : 2,664만 명,
약 40여 개
종족이 존재

1. 특징

- 경계는 거의 전적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 옛날에 사냥 사냥을 했던 보르네오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내륙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롱아우스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 전통적인 원시종교에서 기독교로 많이 개종하고 있으며, 성향이 진절하고 오직적이다.
- 대부분 기독교로 개종한 비다유족과 내륙 강가에 거주하고 있는 오랑우루족, 또한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내륙지방에 있는 롱아우스와 강가 빈민가가 우리의 선교 대상이다.
- 도시와 근교에 사는 중국계와 말레이족은 생활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전도하기가 어렵다.



2. 선교 진행 상황

- 올해 5개 팀이 다녀갔고, 3개 팀이 훈련 중이다.

3. 기도 제목

- 원주민 70%가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미신과 혼합하여 믿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 많은 원주민 목회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 동 말레이시아 지역에 복음화되게 하소서.
- 기독교로 개종하는 인종이 원주민에 국한되어 있어 신령의 불길에 다른 종족인 말레이, 중국계 및 기타 종족들에게도 임하게 하소서.



주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소서

우리가 내정했던 나라는 내란이 일어나 그 열 나라로 선교지를 바꾸었다. 이튿날 산간지대에 있는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곳 영혼들은 예수님을 전해 모르며 마음들이 감광해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가라고 해서 빠져 나왔는데, 14명의 공안들이 와서 여권을 압수하고 이름을 기록하고 연타에 들어갔다. 다행히 여권을 돌려받았지만 운전기사는 훈방조치와 경고를 받았다. 우리는 말로만 들던 이 나라에서 선교가 힘든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셋째 날부터는 산간지대로 더 깊숙이 들어가 밤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2명씩 교대로 일을 도와주며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지는 줄 수가 없었다. 이번엔 신고되던 바로 추방당할 입장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조심스럽게 멀리서 발을 메고 있는 농부에게 2명씩 가서 일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한 후 멀리 있는 농부를 향하여, 산천초목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허공을 향하여 목이 터져라 울음하며 찬양을 하며 눈물을 펄펄 쏟아냈다. "주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여 우리 뿌린 씨앗들이 옥토의 씨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는 사역 마지막 날까지 숨다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김재자(집사, 11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7일(화) - 10월 5일(수)	23교구 9팀	한홍연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2일(월) - 9월 26일(월)	24교구 4팀	이인숙
9월 20일(화) - 9월 28일(수)	4교구 3팀	임태수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2일(월) - 9월 20일(화)	6교구 3팀	홍신기
9월 13일(화) - 9월 21일(수)	청년1부 5팀	최지은

고3이지만

‘지금 네 신앙은 어때냐?’는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신앙은 지금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이 바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못하고, 힘을 때조차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갓 들어왔을 때 저는 교회에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서 그저 교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고, 교회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주님은 부족했던 저를 예쁜 천양태의 부대장으로 세워 주셨고, 수련회도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3이다 보니 학업을 놓치고 있는 기분도 들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매일 매일 감사하기보다는 열려가 더 많아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제 생각보다 위에 계셨고,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맡겨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처음 고등학교에 와서 교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던 때처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제가 되도록, 그런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문정(고등부))

예수님께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2부에 있는 6학년 주나영이에요.

저는 매일 예수님을 꿈에서만 보고 싶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제 옆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떠돌고 장난친 것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고 사랑

해요.

예수님, 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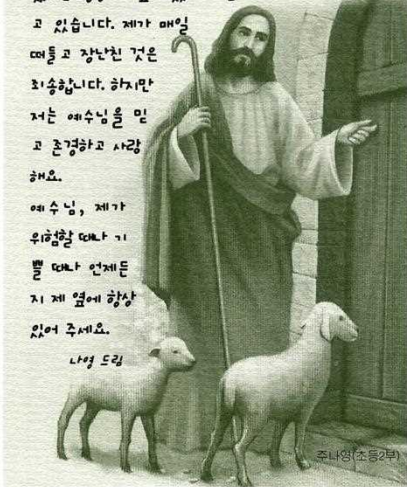
우울할 때마다 기

뻘 때마다 언제든

저 제 옆에 항상

있어 주세요.

나영 드림



주나영(초등2부)

저 어린 아이를 보내셨군요

주일만 되면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는 게 우리 청지기들의 모습일 것이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섬기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오후 2~3시쯤이면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지난 주일의 일이었다. 나는 매주 하던 대로 장년2부 집회를 마치고 교육국의 전산실로 교육과장 집사님과 함께 내려왔다. 목이 말랐다. 집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잠시 물을 마시러 나왔다. 정수기 옆에 비치된 일회용 종이컵을 꺼내려는 순간, 정수기 옆쪽에 서 있는 여자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유치부 정도되어 보이는, 단정하게 머리를 뒤로 묶은 여자 아이였다. 그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다. 아이의 키보다 정수기가 높아 보여 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 종이컵에 하나 가득 물을 받아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나는 그 아이를 다시 쳐다보았다. 아이의 손에는 또 다른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고, 아이는 받은 물을 나에게 마시라고 손짓하였다. 나는 약간 당황했다. 나는 아이에게 받은 물을 넘겨주고 종이컵 하나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물을 받아서 한 모금 마셨다. 이 시간쯤이면 물이 미지근할 때인데 웬일인지 정수기 물이 시원했다. 나는 아이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아이는 두 손을 모으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숙여 예쁘게 인사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어떻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공손할 수 있겠냐?’ 아이는 총총걸음으로 저만치 사라졌다. 너무나 대견스러웠다.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순간, 내가 얼마나 고맙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주일만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교사로 봉사하기로 다짐한 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나는 두서없이 말이 많아졌다. 이것저것 참견하며, 마치 나 혼자 부사일을 다 한 것 같이 ‘온 몸이 땀으로 범벅되었다’는 등 그저 나 자신의 수고만 내세웠던 일들이 생각났다. “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교만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으니 이제라도 저 어린 아이를 보내셨군요. 아무 말 없이 종이컵을 건넸던 그 아이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었군요!” 나의 교만을 회개하는 기도와 가슴 벅찬 감사의 기도로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자꾸 그 여자 아이가 사라진 쪽으로 눈길이 갔다. 나는 종이컵에 시원한 물을 가득 담아서 집사님께 가지고 왔다. “어! 웬일이야? 이집사님!” 나는 씩 웃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사님의 어깨를 주물렀다. 아이가 눈에 어른거렸다. 풀 한 모금의 작은 손집이 오늘 나와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을 전하였다.

(이대걸(교사, 장년2부))

주님의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믿는 사람들과 같이 노방전도에 참석하며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남들이 외치니까 나도 같이 따라했던 주님의 말씀이었다. 2008년도에 주님의 길이 참으시는 사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온전히 영접하게 된 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적인 율령이 되었다. 전종적으로 불교 집안인 부모님을 위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나는 그냥 순순히 물러나는 나의 믿을 없음을 보게 되었다. 그러기를 몇 차례나 반복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생명 살리는 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가운데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름다운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결국에는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20년 전 막내나 신학교에 진학할 때 가장 반대가 심했던 아버지께서 6개월 전부터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드디어 어머니께서도 오는 총동원주일에 주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석하셨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다. 그런데 그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 지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어찌면 ‘교회에 같이 가세요’라는 말을 기다리고 계시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에 나오실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기다리실 것이다. 지금 아름다운 주님의 때를 바라보자.

유재성(집사, 22교구)



새가족양육부 수로자

십자가는 은혜와 사랑

✠ 저는 종교에 대하여 크게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 가고,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것도 구경하고 부모님따라 절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에 대한 외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하여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흠과 같고,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캄캄한 밤 소경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열심이 배우고 공부하며 이 사회에 공헌하고 말로만 하는 교인이 되지 않고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

✠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여 교회를 떠나 있던 중 어느 집사님이 기도과 사랑으로 다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사랑, 빛과 소금과 향기로 나를 변화시키고 의롭게 하며 깨달음을 주십니다. 신령한 예배와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민선옥)

✠ 저는 한 지인의 인도로 중연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개받은 권사님과 자상하고 열성적인 인도로 열심이 성경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교회에 다녔습니다만 그냥 맹목적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에 사하셨고 부활하심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담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연교회를 알게 되어 감사드리며 내 생애, 회로애락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존재하실 것입니다. (오태훈)

✠ 교회 외관이 너무 멋져 호기심으로 둘러보다가 기쁜 마음으로 등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내 인생 최고의 기적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자 전부입니다. 상황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교통하며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낙심될 때 힘을 얻습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방황하였으나 주를 믿고 난 후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니 설사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믿고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차영영)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함아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교회에 세 가지 주된 표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말씀 선포, 성례 집행, 권징의 시행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령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개척자의 교회 교리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에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그리스도는 교회에 직분과 성령과 규례를 허락하심으로써 세상 끝 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온전케 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약속에 따라 자신의 임재와 성령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있습니다(마 28:29-30). 하나님은 교회의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들을 봉사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엡 4:11-13).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박철호(대학부)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교회'란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이 인정되는 성도들의 지역별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에 대하여 지역 교회 내에 있는 참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 즉 그리스도의 참된 몸의 일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엡 4:3).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생명이며, 능력이며, 열정입니다. 연합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한 결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이전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었습니다(롬 3:10, 10:10). 구약의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연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연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당 203호

새가족 등록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808	송진문	청년1부	1
2809	최희연	양육반	2
2810	노정선	양육반	5 황의연
2811	박은주	양육반	5
2812	윤찬용	양육반	9 황순화
2813	박경순	청년1부	10 최미자
2814	박은실	양육반	10
2815	박정희	양육반	13
2816	김은정	양육반	19 김선자
2817	홍혜숙		20 양영숙
2818	김광옥	양육반	21 김재춘
2819	박정희	양육반	21
2820	정세민	초등2부	21 이광주
2821	정종식	양육반	21 변에선
2822	차준호	양육반	21 백승호
2823	황나영	양육반	23 홍정호
2824	정광현	양육반	24 박금란
2825	명평	외선부	25 김성해

